





한국에 살아요

서울대학교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 나선 두빈스키 니나

현장톡톡

이민자 통합의 든든한 다리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입국 사람들

출입국 병아리, 우리는 1년 차입니다

한국생활 사랑방

외국인에게도 꼭! 필요한 자동차 검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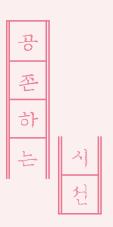




작가명: CHI PEIHUNG

작품명 : 서해안 낙조 명소 꽃지 할미·할아비 바위

* 2023년 세계인의 날 기념 제1회 사진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봄날 따스하게 구워진 바닷바람을 타고 갈매기는 어김없이 할미 할아비 바위로 돌아오고, 여행자는 잠시 두 발을 멈춘다. 공존이다.

Editor's Letter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 지쳐있던 마음을 잠시나마 포근한 봄기운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협업을 통해 심각한 구인난으로 생산 차질이 우려되던 조선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조기 해결하였습니다. 봄철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는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등 제도를 보완하여 농·어가의 일손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고, 올해부터는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합니다.

또한, 산업전반 외국인력 수용 증가에 대비하여 전문·숙련 인력의 체계적 도입과 무분별한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올해 처음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범 운영하고 2025년 제도의 본격 운영을 위한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본부는 지난 12월 향후 5년간의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최초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였습니다.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공정한 법집행을 통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과 동시에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공존 독자 여러분, 행복이 봄꽃처럼 가득한 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ear readers,

A new season has finally arrived with the first blossoms of spring making our heart sing. This time is a lovely reminder of how beautiful change can truly be. Do enjoy the time when the nature resumes her loveliness.

We are extending our efforts since last year to address labour shortages triggered by low birth and rapid ageing. Through bold measures and collaboration, we have addressed the widespread concern over potential production disruptions resulting from acute labour shortages within the shipbuilding sector much earlier than expected. In order to support farming communities ahead of the start of a high season, we have improved regulations by allowing international students' parents to enter Korea as seasonal workers. Additionally, we plan to offer on-site early adaptation programme in earnest, to free seasonal workers from the hassle of paying visits to take part in the programme and support them to adapt to the new culture in a timely manner.

Accepting professional and skilled workers in an orderly fashion is also planned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of foreign workers across all sectors of industries. "Preliminary announcement of employment visa quota" will also be launched as a pilot project this year to address Korean nationals' concern over uncontrolled influx of foreign workers. This pilot project will be fully implemented in 2025 after making updates and improvements, which will convince Korean nationals that we aim to implement reliable immigration policies based on data.

We would also like to let you know that we have finalised "The Fourth Masterplan for Immigration Policy" in December last year, which will serve as a guide in designing policies for the next five years. One distinctive feature of this version is that we have reached out to the public and listened to their voices by organising a panel comprised of Korean nationals for the first time. Being guided by our slogan "Making a leading future-oriented nation, where both Korea nationals and non-nationals thrive", we will not spare efforts to offer impartial and empathetic services by adhering to a rule-based approach to strictly respond to illegal immigration, yet protecting the rights of non-nationals in need.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taking interest in our efforts and wish you to have opportunities to enjoy the warmth of spring.

Sincerely.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Jaeyoo Lee

Contents



06

한국에 살아요

서울대학교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 나선 두빈스키 니나

10

출입국 돋보기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

14

현장 톡톡

이민자 통합의 든든한 다리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4. Spring / Vol. 6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카카오 채널

http://pf.kakao.com/_gxbpPT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4년 4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편집·디자인 이루다플래닛(주) 1566-7699



www.immigration.go.kr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8

출입국 사람들

출입국 병아리, 우리는 1년 차입니다

22

인사이트

지역의 인구감소와 유학생 정책의 변화

24

출입국 인포

해외 원격근무자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26

KIS News



28

한국생활 사랑방

외국인에게도 꼭! 필요한 자동차 검사

32

풍경속으로

교남동이 간직하는 100년의 역사

36

내 손안의 KIS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소식

37

출입국 엽서

'KIS 1345' 로 물어보세요!

38

EVENT

사진 공모 & 공감 & 퀴즈 타임







지난 2023년 8월 29일.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서울대학교에서 제77회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약 3,000여 명의 졸업생이 모인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 나선 이는 푸른 눈의 외국인, 독일 출신 두빈스키 니나였다. 무려 7년 만에 외국인이 졸업생 대표 연사로 나서게 된 사연에 많은 언론에서 취재를 했고, 방송 출연까지 하게 되었다. 현재는 한독상공회의소에서 독일과 한국 기업을 연결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Nina Carolin : Dubinski

같은 서울대 졸업생이라는 공감대를 담은 연설

한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대학교에는 약 4만 명에 이르는 학부생이 있다. 그리고 그 학부생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은 200여 명. 외국인 유학생들의 고민이 다른 일반 학생들과 같을 수 있을까? 제77회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 나선 두빈스키니나(이하니나)가 축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한 부분이었다.

"수여식에 참여한 졸업생들의 입장과 생각을 어느 정도 대변해 야 하는데, 저는 생김새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잖아요. 그래 서 저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니나는 이런 걱정을 '같은 서울대 학생'이라는 단어로 치환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학업과 인간관계, 취업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다 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니나 역시 같은 캠퍼스에서 같은 수업을 들으며 비슷한 고민을 했다. 같은 한국인이라고 해도 모두 생각이 같 지 않은 것처럼 피부색은 다르지만 동질감, 유대감을 느끼는 것은 생김새나 출신 국가가 아닌 개개인의 마음가짐이라는 본인의 생각 을 연설문에 담았다.

다행히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총장님부터 교수님까지 돌아가며 악수를 청했고, 활짝 웃으며 엄지를 치켜올려 주는 선배도 있었다. 외국인이 서울대학교에서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 나선 일이 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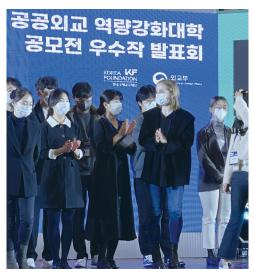
만이기에 언론의 큰 관심이 쏟아지면서 각종 신문과 잡지, 방송에서 그녀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함께 방송에 출연한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아직도 자랑스럽게 인터뷰 영상을 꺼내 보여주곤 한다. 그녀는 독일인으로서 어떻게 서울대학교에서 연설을 하게 된 것일까?

사실, 처음부터 졸업생 대표 연설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서울대학교의 글로벌사회공헌단인 '샤눔다문화공헌단'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이력을 인정받아 기관에서 추천을 한 것인데, 실제로 선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한다. 니나의 주된 봉사활동은 다문화 가정의 중학생, 초등학생을찾아가 도움을 주는 일이었다. 장애인들과 운동을 하기도 했고, 겨울에는 김장을 해서 이웃과 나누는 활동도 있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봉사도 했었다. 고국에서는 따로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그녀가 머나먼한국에서 봉사에 전념하게 된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받은 사랑과도움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교수님이나 직원분들, 친구들, 심지어 대 중교통에서 만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 게 도움을 줬습니다. 매번 이렇게 도움을 받기만 하다 보니, 저도 누 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퇴를 하면서까지 강행한 한국행

동아시아 자동차 회사를 거래처로 두고 있는 아버지 덕에 어려서 부터 아시아 문화권에 익숙했던 니나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몇 달 씩 거주해 보면서 자연스레 동아시아 유학을 꿈꾸게 되었다. 한, 중, 일.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세 나라 중에 한국을 택한 이유는 한글이 예쁘고 배우기 쉬웠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한글이 쉽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한국어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에 K-POP, K 드라마 등 긍정적인 한국 문화가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한 국을 택하게 되었다.

"대학교를 바로 한국으로 오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독일 대학을 다니면서 교환학생으로 유학 오기를 바라셨어요. 결국 2018년에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동아시아미술사 전공으로 입학했지만, 한국 유학에 대한 열망이 커서 1년 만에 자퇴하고 서울대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니나는 2019년 정치외교학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정치외 교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당시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 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자란 저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요.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은 정치 신념을 가진 트럼프가 당선된 이 유와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처럼 지구 곳곳에서 전쟁,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이런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나도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본인의 고집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유학생활은 쉽지 않았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오롯이 혼자 이국에서 보내는 학교생활이 쉬울 리 없었다. 특히 언어의 장벽이 가장 문제였다.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수업을 들을 때는 어떻게든 혼자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한국인 학생들 앞에서 발표할 때는 긴장감에 숨이 막히고 말도 제대로나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한국어는 뉘앙스나 존댓말, 다양한 표현이 많아 애로사항이 많았다. 다행히 주변 지인들과 교수님의 배려 덕에 간신히 수업을 따라가며 무사히 졸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열정이 과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한국인들도 있지만,
그 열정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다.
니나역시
학교에서의 4년 동안,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왔다.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한 소중한 한국 생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니나는 현재 한독상공회의 소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독일과 한국 기업들을 연결하면서 양 국가의 기업들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일을 도맡고 있다. 졸업 이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학생 들도 많지만 니나는 한국에서 취업하는 길을 택했다. 한국 기업도 꼭 경험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취직도 하지 않고 돌아가면 나 중에 후회할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저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코로 나 팬데믹으로 한국 생활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회사를 다 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조금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었어요."

취직을 결심하고 열심히 구직활동을 했지만 그 역시 쉽지 않았다. 한국인들이 경쟁상대였기 때문이다. 니나는 운이 굉장히 좋아 천만다행으로 취직에 성공했다며 겸손을 표했다. 약 5년 동안 학교와 기업에서 한국을 경험한 그녀가 바라보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녀는 한국은 정말 열정이 넘치는 나라라고 답했다. "정말 뭐든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노는 것도, 공부도, 일도. 하루하루를 알차게쓰는 사람이 많아요. 뭔가 결정되면 바로바로 진행되는 걸 좋아해

서 눈치 빠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싫어하더라고요. 이런 건 조금 불편했어요. 독일에서는 원하는 게 있으면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거든요. 처음 한국 생활할 때는 돌려 말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열정이 과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한국인들도 있지만, 그 열정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잘 알고 있다. 니나 역시 학교에서 보낸 4년 동안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왔다. 졸업 이후, 취직을 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 그녀는 지난 4년의 학교생활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정말 정말 힘들었지만 그만큼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아마 독일에서 대학교를 다녔으면 훨씬 편했겠지만 지금처럼 성장할 수 없었을 거에요.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만큼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서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힘든 길을 향해 걸어가지만 항상 밝은 미소를 유지하는 니나. 그녀는 지난 4년의 한국 생활을 더없이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남은 한국 생활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며 환한 웃음을 보였다.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

법무부는 제3차 기본계획(2018~20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12월 27일(수)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향후 5년간(2023~2027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인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본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최초로 국민참여단(총 290명)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민정책과 관련한 관계부처간 논의 및 진행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부과제를 마련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했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주요 추진 과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뒷받침하고, 비전의 체계적 달성을 위해 5대 정책 목표와 18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비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정책목표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중점과제

-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 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 ❸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 4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취업비자 사전 공표제 도입, 숙련기능인력 확대 및 개선, 지역특화비자 정규화,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디지털 노 마드(위케이션) 비자 신설 등





-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 **❸**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불법체류 반감 5개년 계획,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전자입 국신고서 도입 등

정책목표





중점과제

- 객관적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 ②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 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 4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계량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중장기 효과성 측 정,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 발,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동포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등



[인권]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 ② 여성·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 **3**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난민 심사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난민 보호 방식 다변화 등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 ②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 ❸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 4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신설, 법제 정비,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이민 과 개발(Migration & Development)의 정책화 등

The Fourth Masterplan for Immigration Policy: Being a global leader in creating a future-oriented nation focusing on mutual prosperity of both Korean nationals and non-citizens



With the expiration of the previous version of the Masterplan, we have introduced the Fourth Masterplan for Immigration Policy, which provides a guideline and key principles of designing relevant policies between 2023 and 2027. The core value of the Masterplan is "Being a global leader in creating a future-oriented nation focusing on mutual prosperity of both Korean nationals and non-citizens". The Masterplan has laid out five policy objectives along with 18 key projects in the field of economy, public safety, integration, human rights and cooperation & legal foundation.



Key projects of the Fourth Masterplan for Immigration Policy (2023-2027)

I. [Economy] Suppor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regional revival through immigration

- 1. Systematised immigration management programmes
- 2. Attracting and nurturing immigrants for economic growth
- 3. Establishing region-specific immigration policies
- 4. Economic growth powered by immigration policies

[Introduction of preliminary announcement of employment visa quota, dramatic expansion and streamlining of skilled worker schemes, normalizing region-specific visas, expansion of government-led seasonal worker programmes and introduction of Digital Nomad visa]

II. [Public safety] A safe society with immigrants upholding law and order

- 1. Reinforcing response against immigration offences
- 2. Creating an environment of co-existence with immigrants aligned with social norms
- 3. Border management buttressed by public confidence

[Five-year plan on halving illegal residents, establishing step-by-step response measures against illegal residents, strengthening requirements of being recognised as dependent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of foreign nationality, introduction of electronic declaration of entry]

III. [Integration] Social integration with the engagement of nationals and immigrants

- 1. Manag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n a systematic manner
- 2. Promoting understanding and dialogue between nationals and immigrants
- 3. Nurturing immigrants' capabilities as a valued member of the society
- 4. Mutual growth buttressed by a sense of kinship between Korean nationals and overseas Koreans

[Employing quantitative indicators to measure mid-to-long term effectiveness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promoting education on cross-cultural understanding, development of learning programmes on cultural diversity, strengthening job training for immigrants, gradual integration of visas for overseas Koreans and expansion of settlement help centres for overseas Koreans]

IV. [Human rights]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the value of respecting immigrants' human rights is upheld

- 1. Strengthening immigrants' rights
- 2. Preventing the social exclusion of vulnerable immigrants
- 3. Fulfilling humanitarian duties on par with Korea's global standing

[Conducting survey on employment conditions of immigrants, improving detention facilities for foreign nationals, introduction of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UBR), supporting and protecting women immigrants who fell victim to violence, strengthening the integrity of refugee screening process and professionalism, diversifying means of refugee protection]

V. [Cooperation & Legal foundation] Setting up the foundation for immigration administration on par with global standards

-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pursue longer-term immigration policies
- 2. Expansion of facilities on boosting expertise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and research capabilities
- 3. Sophisticated immigration administration powered by technology and innovation
- 4. Reinforcing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tablishment of a new agency dedicated to immigration affairs, improving relevant laws,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regional immigration policy research, promoting Migration & Development into policies]

이민자 통합의 든든한 다리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지난 3월 1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을 열고 21개국 출신 39명의 멘토를 위촉했다. 위촉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로 2년씩 2회 연임이 가능하다.



국민과 외국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은 2020년 1기 출범 이후, 한국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선배 이민자가 멘토가 되어 초기 이민자에게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이민자가 주체가 되는 사회통합 구현을 실현 해 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은 "오늘 위촉된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은 국민과 이 민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게 되며, 이민자 멘토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 생 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체험에 근거한 한국사회 정착 노하우 공유

이민자 멘토단이 되려면 만 25세 이상으로, 귀화자를 포함해 외국인등록 후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어야한다. 이번 멘토단은 교수, 강사, 공무원,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들로 구성됐다. 입국 초기 한국 사회에 정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내기 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멘토단은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을 공유, 공무원 및 일반국민 대상 상호문화의 이해 강의, 재한외국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사업 지원, 재한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 법무부의사회통합 관련 주요정책 자문, 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DU



이승현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법무부 사회통합정책 개요)



조수진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효과적인 스피치 이론과 기법)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양성교육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개최에 앞서 멘토단을 대상으로 법무부 사회통합정책 개요 및 외국인 비자제도 교육 등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스피치 이론과 기법 등 강의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3기 이민자 멘토단의

각인각색 (各人各色)

스토리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 위촉된 멘토 중 3인이 전하는 멘토단 참여 동기와 소감을 통해 향후 멘토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본다.



저는 '한국인이다'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면서 한국 사회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바로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고국의 문화를 그대로 한국에서 적용해서 살아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화 전부터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표시로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나의 문화, 나의 언어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단순히 언어를 배우거나 문화적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그 문화를 심층적으로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2기·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라연우**

18살에 한국 땅에 도착해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았다는 라연우 씨는 "어려운 시기에 멘토가 있었다면 조언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저의 주변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없었다"면서도 한국은 이주민 노동자가 한국 노동자와 차별 없이 같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보기 힘든 매우 매력적인 나라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과 한국에서 정착하는 노하우를 가능한 많은 이주민들과 공유하고 싶어 멘토단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멘티들에게 자신이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마인드'였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한국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또는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방법을 토대로 노하우를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하면, 첫 단계는 한국 TV를 많이 보면서 마음에 드는 표현을 외우고 실제로 한국 생활에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배운 새로운 한국어를 일상생활에서 한국 현지인과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에 대하여 정말 많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어유나

한국 생활 초기에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어유나 씨는 "2002년에 한국에 외국인 학생 자격으로 체류 시에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안내 등을 찾아볼 수 없었고 심지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존재도 몰라서 학생비자를 연장하러 출입국을 두 번이나 방문하기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1345'로 연락하거나 '하이코리아' 사이트로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접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감사함을 밝혔다. 더불어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멘토로서 한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이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건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이민자로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도 해당 나라의 언어 즉, 한국어 능력은 필수입니다. 한국어를 습득하면서 문화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하다면 이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민자에 대해 개방적이고 친절하므로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지를 받으며 사회에 참여하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변하는 한국 사회이므로 힘들더라도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잡는 습관을 들이면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진정한 한국인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이민자들과 공유하며 빠르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멘토단에 참여했다는 한리아 씨는 "한국은 다문화 사회를 구축하고 국제화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국적과 문화를 포용하는 등 외국인 대상 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이 활발하다"며 한국의 외국인 정책의 장점을 언급하면서 외국인 관련 부서들이 업무를 분산하고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면서 외국인 정책을 통합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통합된 외국인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한국어 능력을 기본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기사회통합이민자 멘토단 한리아









화성외국인보호소 권기덕 주문만

저에게는 2020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입사해 일 년 반 정도 근무하고 2023년 다시 입사를 하게 된 남다른 이력이 있어요. 지금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수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덕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어요. 특히,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마주했던 입국 심사관은 까탈스럽고 차가 있지만 굉장히 꼼꼼하고 차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멋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출입국관리직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출입국공무원으로서 지금처럼 루틴화된 업무도 좋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좀 더도전적인 업무를 해보고 싶어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김성하** 주무관

저는 2020년도 출입국관리직에 합격했지만 입사를 유예하여 2022년 11월 대전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천안출장소로 첫 발령을 받았어요. 첫 업무로 외국인 체류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범처리와 관련한 새로운 업무를 맡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에서 부터 출국 조치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외국인을 보호소에 인계하는 호송 업무를 병행하기도 해요. 국내 체류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하면 체류 관리 업무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국내법을 위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 및 사범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소영 주무관**

저는 2023년 입사하여 거제출장소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어요. 올해 1월 거제에서 영종도로 터전을 옮겨 지금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출입국 심사관입니다. 하루 약 20만 명의 승객이 오가고 입국 외국인의 70~80%가 거쳐가는 인천국제공항이 근무지라는 생소하고 낯설었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지만 지금은 잘 적응하여 즐겁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공항에 발령받고 얼마되지 않아 말로만 듣던 위조여권을 적발했을 때 기억은 아직도 신기하고 뿌듯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외국인은 재심 절차를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여 입국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되는데 앞으로는 재심 업무를 해보고 싶어요. 더 나아가 기회가 된다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경 안보를 위해 활동하는 출입국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44

비자신청에서 입국, 체류, 영주, 국적에 이르는 폭넓고 다양한 출입국업무를 최대한 경험해 보고 싶어요

77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 **손예진 주무관**

저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 단속·동향조사팀 1년 차 신규 직원입니다. 저희 팀은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사실 공항에서 일하는 출입국 직원들이 멋있어 보여 도전한 출입국관리직이지만 입사하고 보니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정말 넓고 다양하다는 걸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해보고 싶었던 공항 업무를 포함해 비자신청에서부터 입국, 체류, 영주, 국적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출입국 업무를 편식 없이 최대한 경험해보고 싶어요.





출입국 새내기 4인방이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격려의 한마디





화성외국인보호소 권기덕 주무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역시 수험생활 동안 천재가 아닌 이상 보고 나면 까먹는 게 당연한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하며 자책을 한 경우가 많았답니다. 결국 제 속만 갉아먹고 스트레스만 더 받았던 것같아요. 힘들겠지만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 노하우라기보다는 제가 수험 생활을 했던 경험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합격하겠다는 굳은 의지나 열정이 아니라, 그냥 그날 해야 할 일을 아무 생 각없이 그리고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 후에 한적하고 공기가 맑은 법무연수원에서 한 달 동안 지내는데 그때 동기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공유 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수험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밤잠 줄여가며 고3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험생활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느낌이었어요. 수험생활 초반에 여유가 된다면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다져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도중 틈틈이 스트레칭은 해주셔야 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이기에 건강관리는 필수입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 **손예진** 주무관

"수험생활은 매일매일 쳇바퀴를 돌듯이 일어나서 학원-도서관-집을 매일매일 반복했어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해져 있는 일을 반복하고 또 그대 로 따라가다 보니 힘들다는 생각도 덜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합격 후에 법무연 수원에서 동기들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기회를 누려 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들 과 모여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을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지내는 경험은 꼭 고등학생 때 수학여행을 길게 하는 것처럼 새롭고 즐거움이 가득하답니다."

지역의 인구감소와 **유학생 정책의 변화**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인구감소로 인해 외국인의 정주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학생이 국내 정주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졸업 후

취업과 정주에 정책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며 정책연구실장직을 맡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 회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학위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4년 약 5.4만 명에서 2023년 13만명으로 9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증가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2023년 교육부는 2027년까지 현재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유학생 유치뿐만이니라 이들의 국내 취업과 정주를 위한 방안까지 담고 있다. 유학생의 취업과 정주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한 신문의 사설"에서 지적하듯이 "인구절벽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에는 유학생 정책이 한국에서 언어와 학문, 사회와 문화를 학습한 인재가 전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글로벌 지한파'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어떻게 국내에 남아서 취업하고 정주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해 인구 확보가 더욱 절실한 지역에 외국인 유학생이 대안으로 떠오르며 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F-2-R)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된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 취업과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거주 비자를 발급 하는 것인데, 지역 거주 요건을 제외하면 다른 거주 비자에 비해서 취득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살 의향이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관심이 갈 법한 비자이다.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 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의 요건과 함께 법무부가 지정 하는 요건(학력/소득, 한국어 능력, 거주지, 법 준수)을 모두 충족해 야 하는데, 학력/소득의 경우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1인 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임금(창업은 투자금액 2억 원 이 상)을 요건으로 한다. 2024년 현재 이 기준을 적용하면 임금은 약 3 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에게 이 정도 수준의 연봉을 지급할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의문이다. 그러나 국내 에서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유학생의 경우 자격변경 시에는 이 소 득 요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비자 취득이 유리하다. 한국어 능력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 상을 배정받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받으면 되는



데, 대부분의 국내 대학은 유학생의 졸업 요건으로 최소 TOPIK 3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졸업한 유학생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일명 라이즈(RISE) 역시 지역으로 유학생을 유치하여 지역의 산업발전과 인구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에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인 라이즈는 지역 단위에서 지자체와 대학 및 산업계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스스로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짜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지역 단위에서 수립된 전략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예산을 차등 배분한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졸업 후 지역 내취업 및 정주로의연계 전략은 라이즈에서 평가하는 핵심 항목 중하나이다.

유학생이 그동안 인재유치 정책의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국내 비전문인력 부족의 대안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2022년 12월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산업현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는 E-9 유학생 특례 신설을 제안하였는데, "전문인력(E-7)으로 취업하지 못한 유학생을 본국 귀국 대신 비전문인력으로 활용하고, 향후 숙련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에 계속 남고 싶은 유학생 중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할 의향이 없거나 지역특화형 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학생이 관심을 가질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인구감소 지역의 생존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학생이 "적절한" 대안으로 부상한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암묵적 기대가 깔려있다. 우선, 다른 외국인 유형에 비해 유학생은 한국이 좋아서 선택하였을 것이며, 또한 한국어를 잘하고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도 스스로 잘 적응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또한 이러한 유학생이지역 대학을 거쳐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를 하게 되면 지역의 청년인구 확보, 지역 대학의 학생 충원, 대학 주변을 비롯한 지역의



상권 활성화, 그리고 지역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는 기대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유학생의 국내 취업과 정주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정책들을 보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유학생의 욕구나 선호가 고려된 정책 인지 의문이 든다. 유학생의 대부분은 청년이다. 한국의 청년이 떠나 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유 학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학생은 어떤 환경이 조성될 때 지역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먼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 가 있다. 다음으로, 유학생의 취업과 정주가 지역에 가져다 줄 긍정적 효과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 실증 분석에 기반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 렵다. 유학생 정책이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들의 취업과 정주가 지역의 산업과 인구 문제 해결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실증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에서 한국 유학을 바라보는 인식 또는 위상의 저하가 우려스럽다. 현 실적으로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 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유학생 출신은 지역특화형 비자의 소득 기준을 적용받지도 않는다. 지역에서 유학생의 유치와 정주의 양적 목 표에만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유학생을 가능한 많이 받아들이려 할 것이고 지역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연결시켜 줄 것이다. 이 렇게 되면 학업능력이 떨어지거나 학업보다는 취업 목적으로 오는 유 학생의 비중이 커지고, 저숙련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한 일자리에 취 업하는 유학생 숫자도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유학생의 비중이 커질수 록 해외에서 한국 유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되는 길이 아 니라 단지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또 다른 경로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 국내 많은 외국인 유학생은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자신이 흥미 있 어 하는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과 학문을 습득하기 위해 한국에 왔으며 한국을 떠나 어디에서 활동하든지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을 자 랑스럽게 간직하고 싶은 이들이다. 유학생 정책이 지역 취업과 정주에 과도하게 집중되다 보면, 단지 국내 취업이 목적인 외국인이 아닌, 학 문적 성취와 자부심을 추구하는 유학생들이 더 이상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

해외 원격근무자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위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지칭한다.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

국내에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운영 전에는 외국인이 국 내에서 워케이션을 하려면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 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 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디지털 노 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함으로써 외국 회사 에 소속된 근로자도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기 만 하면 국내에서 관광을 하며 장기체류할 수 있다.



비자 신청 및 발급 대상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대 한민국 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

한 사람 중에서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사람으로 동 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 능하다.



소득요건 및 의료보험 가입

해당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전년도 1 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의 소득을 받아야 하고, 체류 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 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참고로, 2022년 기준으로 1인 당 GNI는 4,248만 원(월 354만 원)으로, 외국인이 해당 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 8.496만 원(월 708만 원) 이상의 소득을 증명 해야 한다.





제출 서류 및 국내 체류 기간

워케이션 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가족 동반시)

※ 외국발행 공문서의 경우 아포스티유* 첨부 (*아포스티유: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Legalization) 절차 또는 그에 대한 국제 협약)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면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 도 가능하다. 즉, 단기체류 관광비자(B-1, B-2, C-3)에서 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로 자격 변경이 가능하 다. 단, 최초 1년을 부여하고 이후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 장 2년까지 국내에 체류가 가능하다. 더불어 디지털 노마드(워케 이션) 비자를 소지해도 국내에서의 취업은 엄격히 제한되므로, 국 내 취업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한다.

※ 사증발급 신청서 서식(별지 제17호)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 집(immigration.go.kr) '새소식' 메뉴의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제도 안내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gital Nomad (Workation) visa as a pilot project

for remote workers from overseas



The introduction of Digital Nomad (Workation) visa

- As of 1 January 2024, we have introduced Digital Nomad visa as a pilot project, which allows remote workers from overseas to stay in Korea long-term while enjoying vacations in the country.
- Employees of a company based overseas can apply for a Digital Nomad visa, provided that he/she meets the minimum income level and length of service requirements.



How to apply & Eligibility

- Visit a Korean embassy for application. Switching an existing visa to a Digital Nomad visa can be done by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covering the area of his/her residence, provided that requirements are met.
- Foreign national employees aged 18 or more with at least one year of work experience in the same field, who can work remote and are affiliated with a company based overseas can apply, including accompanying family members.



Income and mandatory medical insurance requirements

- ·Foreign nationals with proof of income of at least twice the previous year's per capita GNI announced by the Bank of
- **As per capita GNI as of 2022 announced by the BOK is KRW 42.48m (KRW 3.54m/month), the minimum income requirement for Digital Nomad visa applicants is KRW 84.96m (KRW 7.08m/month) equivalent.
- •Subscription to medical insurance with coverage of at least KRW 100m is mandatory in case situations requiring medical treatment and repatriation arise during stay in Korea





Required documents and allowed period of stay in Korea

- *Required documents
- A completed visa application form #17, passport, standard size portrait photo

(The visa application form #17 can be found under the "What's New" section of the English version of the KIS website.)

- Proof of employment and documents demonstrating the applicant's income, including salary statement and bank transaction certificate.
- *Criminal record certificate, certificate of medical insurance subscription and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should the applicant wish to accompany family members to Korea.
- (* Please note that official documents issued by foreign governments should be Apostille certified.)
- •Maximum period of stay: Initial maximum period of one year is granted up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with an extra one-year extension by choice, bringing the total maximum period of stay to two years.
- Employment and profit-seeking activities in Korea are restricted as performing such activities requires a separate visa.
- ·Short-term tourism visa (B-1, B-2 and C-3 visa) holders, who meet requirements can switch their visa to Digital Nomad visa.

KIS NEWS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4 Spring Vol. 67



법무부 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세 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지난 4월 4일 서울출입 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을 방문해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류 외국인의 실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무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이민 정책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하이코리아' 누리집(https://www.hikorea.go.kr)을 통해 제공한다. 우선 5종의 자료(① 전 세계 인구·이민 자 현황, ②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③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④ 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현황, 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시각화)를 제공하며 이용 자는 연도별, 국가별, 지역별 등 다양한 검색 조건을 조합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 및 관련된 출입국·이민정책 추진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법무부, 제61회 '법의 날' 기념행사 개최

법무부는 지난 4월 2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주관으로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공 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제61회 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기념행사에서는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옹호에 공헌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 상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기념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축사가 있었다.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법무부는 지난 3월 22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 기술센터에서 2024년도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총 3차시로 ①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초 · 법질서와 인권 교육 ② 긴급상황 대응 방법, 교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생활정보 ③ 농작업 안전 수칙,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전문 강사가 직접 해당 지역의 교육 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한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 제도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난민전문통역인 대폭 확대 (308명→414명) 운영

2024년 1월 29일 법무부는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앞으로 414명(34개 언어)이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면접 과정에서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간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통역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법 및 난민통역 윤리 등 난민 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3년의 위촉기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 알려주는 한국생활 필수 정보

외국인에게도 꼭! 필요한 자동차 검사



알아 두기 자동차 검사는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실시하는 종합검사 등 8가지 종류가 있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안내

위반기간	과대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프카니스탄 출신 한국살이 16년차 우스만이 무함마드 하니프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는 미뤄왔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자동차 검사 절차를 체험하러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자동차검사소로 떠나 보시죠~.









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 웹 페이지를 방문해 자동차 검사일을 예약해두 었지요~. 예약 차량은 접수실 방문할 필요가 없이 예약 라인에서 대기하면 됩니다. 온라인 예약을 깜빡하셨다고요? 당일 빈 자리나 예 약이 취소된 건이 있으면 현장 접수가 가능 합니다.



제 차례가 되었네요. 검사장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맞아 주시네요. 직원분께 차를 맡기고 검사가 끝날 때까지 고객 대기실로 이동해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 차량을 담당해 주실 장문성 주임님과 함께 몇 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체험해 보기로 했어요~. 자동차 검사는 관능검사, ABS검사, 하체검사, 전조등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검사결과 설명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능검사

(동일성 확인·전자센서진단·표준서비스)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위·변조, 등록번호 판 및 봉인상태 등 불법구조변경 등을 확인하고 자동차의 각종 전자센서를 점검하고, 각종 오일 오염도 및 오일량점검,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도 확인했어요.



ABS 검사

(앞·뒤바퀴 정렬 검사·제동력 검사·속도계 검사)

핸들의 쏠림 및 타이어 이상 마모의 원인이 되는 타이어 앞쪽의 안쪽과 바깥쪽 등을 검사하는데요. 더불어 자동차의 앞된 주차 제동력과 좌우 제동력 편자 등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과속운전방지 및 제동거리 확보를 위한 속도계의 작동 및 오차범위를 검사합니다.



하체 검사

자동차 하체에서 각종 부품의(조향계통, 엔진계통, 배기계통, 연료계통, 브레이크계통 등) 체결상태 및 누유 등 이상 유무를 전문가가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제 자동차의 하부를 직접 보는 건 처음이라 신기했어요.





전조등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이간 운전의 핵심인 전조등의 밝기 및 비추는 방향(상·하·진폭)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방지 및 자동차 연비 개선 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도 검사합니다. 간단한 전구 교환 정비는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가 끝나면 담당 직원분 께서 검사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자동차 기능종합 진단서'를 배부해 줍니다. 다음 정기검사 일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사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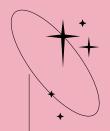
자동차 검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 결과는요…, '합 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자동차 검사, 도움이 되 셨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사이버검사소(https://www. cyberts.kr/portal/main.do)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환경 오염 방지에도 기여하는 자동차 검사. 이제 잊지 말기 로 해요!

올바른 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합니다!

*** 자동차 검사는 대한민국에서 운행되는 차량이라면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받게 되어있습니다. 공단은 검사 기간 만료일 전후로 문자, 우편 등으로 검사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검사는 공단 검사소 외에도 여러 지정 검사소들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자동차 검사를 통해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앞으로 태어나 같이 살아갈 아이들에게 안전한 도로, 깨끗한 도로를 지키고 돌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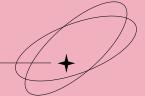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자동차검사소 장문성 주임



교남동이 간직하는 100년의 역사





교남동은 한양도성의 서문이었던 돈의문 밖 첫 번째 마을이다. 20세기 초 돈의문 주변은 미국인과 유럽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돈의문 주변은 외국인들이 새로 지은 서양식 건물과 판매하는 수입품들로 채워지면서 점차 이국적인 풍모를 띠어갔다. 홍난파 가옥과 딜쿠샤 근대 서양식의 건축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 서울역사박물관 제공

백범 김구선생이 서거한 역사적 현장 '경교장'

1938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금광왕 최창학은 2층 서 양식 건물인 '죽첨장'을 짓고 주로 외빈 접대용으로 사용했다. 최창학은 해방이 되자 친일 행위를 모면하 고자 김구 선생에게 이 집을 무상으로 내주었다. 백 범 김구 선생은 '경교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 고 1949년 서거하기 전까지 임시정부 청사로 사용했 다. 이후 대사관, 고려병원 시설 등으로 사용하다가 2013년에 서울시에서 임시정부 당시 모습대로 복원 해서 일반에 개방하고 있다. 경교장을 방문하면 2층 에 탄환 자국을 볼 수 있는데, 백범 선생이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과 순간을 직접 느낄 수 있다.

• 문의: 02-735-2038

• **이용시간**: 09:00 ~ 18:00 (17:30까지 입장 가능)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경교장 🕒 외부 🚯 내부

출처 : 『돈의문 밖, 성벽 아랫마을; 역사·공간·주거』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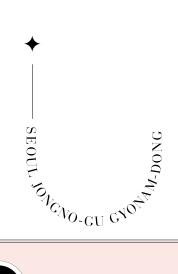
홍난파의 집 '홍파동 홍난파 가옥'

'봉선화' '고향의 봄' 등으로 유명한 작곡가 홍난파가 6년간 말년을 보낸 홍파동에 위치한 홍난파 가옥은 독일 선교사가 건축한 붉은색 벽돌 벽체에 붉은색 기와를 얹은 서양식 건물로, 1930년대 서양식 주택특성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붉은 벽돌을 타고 집 주변을 넝쿨이 둘러싸고 있어 마치 근대 시대에 온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홍난파 선생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홍난파 가옥 앞에는 월암공원 야외무대가 있어 작은 음악회가 열리기도 한다.

• 문의: 02-2665-7419

● **이용시간**: 하절기(4~10월) 11:00~17:00 동절기(11~03월) 11:00~16:0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1길 38







한국을 사랑한 이방인이 살던 곳 - 서울 종로 '교남동'

조선의 개항은 한국이 근대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차가 개통되면서 20세기 초 돈의문 주변은 특히 미국인과 유럽인들이 많이 거주했다. 일제강점기 3.1 운동을 세상에 알린 미국인 앨버트 테일러와 그의 가족이 거주했던 '딜쿠샤'는 60년간 잊혀졌다가, 앨버트 테일러의 아들인 브루스 테일러가 한국을 방문한 후에 비로소 세상에 알려져 문화재로 등록됐다.



역사를 품은 이방인의 붉은 벽돌집 '딜쿠샤'

종로구 사직터널 오른쪽 축댓길로 오르면 언덕 위의 2층 붉은 벽돌집이 있다. 바로 딜쿠샤다. 건물 동쪽 측면 아래에 머릿돌이 있고 'DILKUSHA 1923'라고 새겨져 있다. 딜쿠샤는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에 있던 저택으로 3.1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AP통신 특파원고 앨버트 테일러 부부가 살던 집이다. 이제는 복원되어 겉모습이 살짝 새것 느낌이 들긴 하지만 1923년부터 추방되던 1942년까지 테일러와 메리 부부 가족이 살던 100년 전의 테일러가(家)이다. 이곳은 2018년 시작한 복원 작업 끝에 역사전시관으로 재탄생되어 2021년 3월에 개관했다.

• 문의: 070-4126-8853

• **이용시간:** 09:00 ~ 18:00 (17:30까지 입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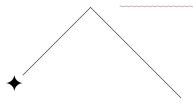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2길 17





딜쿠샤 🕒 2009년 복원 전 사진 🕤 과거

~ 출처 : 『돈의문 밖, 성벽 아랫마을; 역사·공간·주거』 (2009)





도보코스

5호선 서대문역(4번 출구) → ① 돈의문 터 → ② 경교장 (강북 삼성병원) → ③ 홍난파 가옥 → ④ 권율장군 집터 및 수령 400년 은행나무 → ⑤ 딜쿠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소식을 만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소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 발간

facebook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 전 문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업무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의 SNS 채널을 소개합니다. 공식 페이스북 · 유튜브 · 카카오채널에서 본부와 출입국 · 외국인 정책 소식을 가장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2

제17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

kakao 의

제17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

시물출입국 · 외국인청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

(Seoul Immigration Office-led Talent Contest for All Foreign Students across Korea to Celebrate the 17th Anniversary of Together Day)

2024. 5. 20.(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2024. 5. 14.(화)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 카드뉴스 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KIS 1345'로 물어보세요!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알려드려요



- ① 저는 한국인과 결혼을 한 외국인입니다. 국적을 취득 하는데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A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귀화를 통해 우리 국 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바, 심사 기간은 가족형태 및 자녀양 육 여부 등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 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실태조사가 간 소화 되어 약 10개월 가량이 걸리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 우에는 최장 19개월 가량 소요되기도 합니다. 심사 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 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으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 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청할 때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범죄경력증명, 가족관계증명 등 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첨부가 필요하며,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의료보험 등에는 아포스티유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번역·공증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외국 기업 소속 직원이 아닌 대표의 경우에도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 A 해외 사업체 소유자(대표)인 경우에도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1년의 동일 업종 근무 경력과 소득이 증명되는 경 우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한국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등록외국인입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게 되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증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따라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서(출입 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새로 발급받은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등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되니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잊지 마세요.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상담시간: 평일 09:00~22:00 (한국어 포함 20개국 안내/ 야간 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운영) 재한외국인의 행정 · 생활정보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대표전화

일반전화, 휴대폰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45로 연결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4 Spring Vol. 67 EVENT #1

1. <공존하는 시선> 공모

<공존>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사진과 함께 사진 설명을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선정을 통해 <공존하는 시선> 코너에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드립니다.

참여 기간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6월 14일(금)

참가 대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귀화자 포함) 누구나 가능

공모 주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귀화자 포함)이 바라보고 느낀 한국의 전통 또는 아름다운

모습을 촬영한 사진(풍경, 인물, 사물 모두 가능)

※ 타인 사진(작품) 제출에 따른 저작권 위반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출 방법 (작품) 사진 파일(JPG파일, 가로 300dpi 이상, 고화질 우대)

(추가정보 기재) 이름, 연락처, 작품 제목 및 설명, 촬영 날짜

참여 방법 starrivertrain@iruda-planet.com / <공존> 편집실

당첨자 발표 2024년 6월 20일 개별 통보

이벤트 혜택 2024년 <공존> 여름호 '공존하는 시선' 코너 게재 및 소정의 상품 지급

EVENT #2

2. 독자 의견

2024년 <공존> 봄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재미있는 콘텐츠, 유용한 정보, 아쉬웠던 점 모두 좋습니다. <공존>은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여 기간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17일(금)

참여 방법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계정 or 유튜브 계정을 팔로우(구독)!

2.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글 or 유튜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

3.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경품 이벤트 독자 의견을 주신 분들 중 5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024년 5월 22일(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세요!

EVENT#3

3. 퀴즈 타임

QR코드를 스캔해 퀴즈 정답을 맞혀주세요.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Q. 국내에서도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2024년 1월부터 도입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는 비자는?
- 관광취업 비자● 방문취업 비자● 다기방문 비자

빠르고 간편한 독자 퀴즈 참여 방법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서 <공존>에 관한 독자 의견과 퀴즈 정답을 남기면 참여 완료!











하군어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가 궁금하시다면?

2024 이민자체류실태및 고용조사 2024. 5. 21. ~ 6. 4.

2024 Survey on Immigrants' Living Conditions and Labour Force 2024 移民滞留情况以及劳动力调查



- 조사목적: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의 생활 실태와 고용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
- 조사대상: 국내 체류 외국인과 귀화허가자 중 표본추출된 25,000명
- 조사방법: 통계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 조사기관: 법무부·통계청
- Survey Purpose: To identify the current living, employment and unemployment conditions of foreigners or naturalized citizens who have lived in Korea
- Survey Unit: A sample population of about 25,000 foreigners or naturalized citizens who have lived in Korea
- Survey Method: Face-to-face interview
- Agency: Ministry of Justice · Statistics Korea
- 调查目的:掌握在韩居住的外国人或入籍;可者的韩国生活现状,就业及失业现况
- 调查对象:境内外国人和入籍许可者中被抽取的约25,000人
- 调查方法:调查员进行面对面调查
- 调查机构:法务部·统计厅

